



노안

밝은안과21병원 윤길중 원장

내가 벌써… 돌보기 대신 라식으로 교정

신문이나 책을 보는데 눈이 쉽게 피로해지면서 읽는 거리가 기준 보다 멀어진다면 근거리 시력 장애, 즉 노인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독서는 물론이고, 헌총 늘어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 환경, 심지어는 태블릿 PC 및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며 보니, 근거리 시력의 중요성은 전문적인 근업(近業) 직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원거리 시력만큼이나 중요하다.

◇근거리 시력의 불편함 해소가 중요

일반적으로 굴절 상태에 따라 원거리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빠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부터 시작되는데 신문이나 책을 보는데 평소 거리보다 점차 멀어진다면 노안의 징후라 할 수 있다.

원인은 전문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수정체의 탄력의 감소로 발생하는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벌써 나이가…”, “상실감, 심지어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까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대부분은 애써 태연하게 현재의 눈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안경 즉 돌보기를 찾게 된다. 안경도 일반 근거리용에서 다초점까지 가격도 가격이지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 평소에 착용하던 안경에 또 하나의 짐이 발생해 수술적인 방법을 문의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과연 노안의 수술은 어느 부분까지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시력교정을 위해 사용되는 라식처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근거리 불편함에서 벗어나 보다 편리하고 업무의 효율성까지 증진에 만나는 새로운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수술을 위해서는 환자의 정확한



밝은안과21병원 윤길중 원장이 라식기법인 'Presbymax 프로그램'을 이용한 근거리시력교정(노안교정) 수술을 하고 있다.

PC·스마트폰에 지쳐가는 눈… 30대 후반부터 징후

정확한 눈 상태·근거리 시력 등 파악 후 수술 결정

눈 상태 파악이 우선이고 원하는 작업거리, 만족할 만한 근거리 시력의 정도, 기준 눈 수술을 받았는지도 수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개인 특성에 맞는 근거리 시력 교정수술

라식 수술도 사용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발달 덕분에 최근에는 All 레이저 라식이 보편화돼 헌총 안정된 시력결과와 만족도로 조건만 된다면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들이 많다. 모든 기술이나 첨단 장비도 대체 더불어 동반해서 발달하는 것처럼 근거리 시력 교정 즉 노안 수술도 다양한 기법으로 환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수술 기법은 백내장의 동반 유무에 따라서, 백내장이 동반된다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보다 정교한 비구면 인공수정체 사용과 난시 교정용

렌즈의 사용으로 환자의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만족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백내장이 동반되지 않은 연령층의 근거리 시력 장애 환자가 대다수이다 보니, 간편하고 빨리 회복해 일상에 복귀 할 수 있는 수술법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다.

다른 방법은 각막의 심층부위에 작은 구멍이 많이 설치된 얇은 막을 삽입해 근거리 시력을 교정하는 각막 인레이 (Inlay)를 이용한 수술법을 들 수 있다. 이는 라식과 같은 기존 시력 장애를 교정하는 수술과 동시에 시술이 가능하고, 기존에 첨단 초점 렌즈를 사용했던 백내장 환자들에게도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안 시술,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단점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수술 방법은 무엇일까? 최근에 도입된 EX 500 옵티레이저를 이용한 커스텀 QnA, 아마리스 750 레이저를 이용한 Presbymax 프로그램을 이용한 라식기법의 수술이다. 안전성은 이미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시술되고 있다. 과거의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양안 모두 근성이 가능하고, 원거리 시력 감소를 줄여, 양안 시력차이에 의한 문제점을 개선해 환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근거리 시력 교정수술(노안 수술)은 개인에 특성에 맞게 수술이 가능하고, 기존에 굴절 수술을 하였던 눈에서도 환자의 욕구에 맞추어 수술을 선택 할 수 있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눈에 맞는 수술을 선택한다면 근거리 장애로 인한 불편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급매”

회사 사정상 매매, 010-4667-9300

14P

- ▶ 14층, 주거겸 사무실
- ▶ 무등산쪽, 전망좋음
- ▶ 매매가 3500만원

29P

- ▶ 10층, 주거겸 사무실
- ▶ 하천쪽, 로얄층
- ▶ 매매가 6500만원

38P

- ▶ 2층, 사무실 전용
- ▶ 하천쪽
- ▶ 매매가 1억 500만원

53P

- ▶ 9층, 사무실 전용
- ▶ 양동/하천쪽, 코너
- ▶ 매매가 1억 5000만원

77P

- ▶ 20층, 사무실 전용
- ▶ 최상층, 전체 올수리
- ▶ 매매가 3억원

1층 상가

- ▶ 정문 코너, 편의점 임대
-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25만원 임대
- ▶ 매매가 1억 7500만원

경매 투자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공동투자 가능
- ▶ 실전사례 중심교육
- ▶ 교육비, 1200만원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현경매 H.010-3605-5000

“다문화시대, 나눔을 실천합니다”

조선대 치전원 ‘지구촌 봉사단’ 창립 ‘의료봉사센터’ 개설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병원 교수들이 아시아 유학생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고려인 및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단을 창립하고, 진료센터를 개설한다.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홍중교수)과 치과병원(병원장 안종모교수) 소속 교수 30여명이 오는 7일 ‘지구촌 봉사

단’을 창설하고, 의료봉사센터를 개설한다.

강 교수는 또 “다문화 시대에 우리 지역에는 5000명 이상의 아시아 유학생, 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취약계층들이 있어 공동체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역의 의료인들이 뜻을 모아 봉사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어린 환자들에게 꿈·희망·용기 선물”

화순전남대병원 ‘아름인 도서관’ 개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직무대행 정신)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공간이 생겼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일 소아과 외래진료실 옆에 마련된 ‘아름인 (人)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아름인 도서관’은 신한카드사가 후원하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2010년부터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병원 등에 도서관을 조성해오고 있다.

병원측은 지원에 힘입어 소아과

기대한다. 모든 환아들의 조속한 희유를 기원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신 원장직무대행은 “이 도서관은 환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큰 선물”이라며 “주위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바탕으로 암 등 질환 완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순전남대병원은 병원 내에 ‘여미사랑학교’를 운영하는 등 환아와 청소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함께 ‘건강나누리 캠프’를 개설, 숲을 활용한 환경성 질환 치유에도 힘쏟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불우환자돕기 ‘그림으로 만나는 사랑나눔전’



전남대병원(병원장 송은규)이 불우환자 돋기 ‘그림으로 만나는 사랑나눔전’을 12월 한 달간 전남대병원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전남대병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환자들의 희유를 기원하며, 특히 불우환자와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양화·동양화·사진 분야에서 한희원·이혜경·오경규·이설제씨 등 유명 화가 12명이 참여해 꽃과 풍경 등을 소재로 한 총 3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특히 전시회 작품은 모두 한 점당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며, 판매금 일부는 불우

환자 돋기 성금으로 기탁된다.

지난해 리모델링을 통해 퀘적한 의료환경을 갖춘 전남대병원은 지난 1월 로비에 갤러리를 조성, 환자와

보호자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매달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